

# 이재명 대통령도 다녀간 '장성아카데미'... 15일 30주년 행사

## 1995년 이견영 원장 초빙 첫걸음... 1200여 명 강연, 53만여 명 수강 진기록

## 15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기념식... 가수 선, 강대중 서울대 교수 특강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군 '장성아카데미'가 오는 15일 30주년을 맞이한다.

1995년 9월 15일, 국토개발연구원 이견영 원장을 1회 강연자로 초빙하며 문을 연 장성아카데미는 '코로나19 펜데믹' 등 어려움 속에서도 30년의 시간을 씬 없이 달려왔다. 1200회 넘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학자, 연예인 등 명사들이 강단에 섰다. 누적 수강 인원은 53만여 명에 이른다.

2019년에는 한국기록원과 유럽연합 오 피셜월드레코드(EU QWR)로부터 '세계 최장기간 운영된 정기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2006년 1월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가 혁신을 위한 참여 환경 조성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성아카데미'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장성아카데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기념식과 특별강연을 연다.

강연은 가수 선과 강대중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꾸준한 봉사과 기부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은 이날 '나눔, 사랑을 잇다'라는 주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분야 권위자인 강대중 교수는 '배움,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 아래 지역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방향을 제시한다.

대공연장 밖에서는 지금까지 발간한 강연집과 감사 저서 등 장성아카데미가 남긴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역대 강사들의 '포토월'과 강연 영상 상영, 디지털 방문록도 준비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아카데미의 지난 3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30년에도 사랑을 성장



시키는 교육의 장,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 나눔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완도 섬 스탬프 투어 인기' 10월 말까지 진행

## 7개 도서 지역 방문 시 자동 인증, 추첨 통해 상품권 제공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 치유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섬 스탬프 투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18일 시작된 '섬 스탬프 투어'는 8월 31일 기준 총 402명이 참여, 902건의 스탬프를 인증받았다.

스탬프 인증 장소는 11개로 최대 7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개 도서 지역 중 완도의 대표 관광지인 청산도가 172회로 가장 많은 인증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보길도 171회, 노화도 146회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추이를 보면 8월에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329명이나 참여했다.

이는 섬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가 관광객들의 흥미를 끈 것으로 보인다.

'섬 스탬프 투어'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완도군 외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광객으로 핸드



폰에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한 후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스탬프는 청산도, 노화도, 금일도, 소안도, 금당도, 보길도, 생일도 등 각 지역의 항구에 들어서면 GPS를 기반으로 자동 인증된다.

매일 추첨을 통해 스탬프를 모은 개수에 따라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하며, 스탬프 5개 이상을 인증받으면 5만 원권, 3개 이상은 3만 원권, 1개 이상은 1만 원권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소비 촉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 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주간 운영

다. 군은 언론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가맹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현금화, 양도,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군민 안내와 신고 홍보

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소비 촉진 주기를 통해 군민 모두가 지역 소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무안군립국악원, 누구나 쉽게 배우는 해금교실 개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운영하는 무안군립국악원에서는 군민들이 전통음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해금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해금교실은 모집 단계부터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아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첫 수업에서는 악기 기본재제와 활 운용의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은 국악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에게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 하늘 향해 날개 펴는 함평군 백학마을, 벽화 거리 조성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백학마을 주민이 마을 특색을 살린 벽화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명소를 만들었다. 함평군은 5일 "학교면 백학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의 이름을 형상화한 벽화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백학마을은 마을의 지형이 학을 닮아 '백학(白鶴)'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학마을 주민들은 간척 이전 바닷물이 들어와 학이 노닐던 아름다운 마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 경로당 앞의 노후 벽면에 'BAEKHAK'이라는 마을 이름을 담은 벽화 포토존을 만들었다. 학교 6구를 상징하는 6개의 벤치와 학, 그리고 학의 동선을 형상화한 물결들이 통일감을 이룬 마을의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밤에는 하얀 벽과 어울리는 꽃등 조명이 은은한 경관을 연출한다.

함평/전광훈 기자



##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 수리 및 안전교육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 사용이 많아져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초기 무상 수리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사고 없는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